

식품산업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

김성훈/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1. 우리나라 로컬푸드 운동의 여건과 의의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 또는 인근에서 소비하는 운동”인 로컬푸드 운동은 대량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신선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웰빙 내지는 로하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기반으로 확산되다가 신정부의 녹색성장 등의 정책 시행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식품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식품의 양과 영양성분 등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식품의 질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찾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히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식품 소비를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 자연까지 더불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이다.

2. 식품산업과 로컬푸드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을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논의할 것이 매우 많아 보인다. 우선, 현재 소수의 대형업체가 다수의 영세업체들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산업의 시장 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로컬푸드 운동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음료산업의 경우 몇몇 대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내 원료 생산농가나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키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그 지역에 생산되는 원료 농산물로 가공된 음료제품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지역별 틈새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신제품이 시장에 나와 보기도 전에 사장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농림축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가공식품중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앞서 예를 든 과즙음료의 경우 감귤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산 농축과즙을 들여와서 생산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에 의해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가공되는 식품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 식품산업의 대응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입되는 수입식품들을 보면 과거 저가 저품질의 식품이 많이 들어오는 비중이 줄어들고, 고가의 고품질 식품이 수입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저품질 수입품 시장과 고품질 국산품 시장이 분리되어 일정 수준 보호 되던 국산 식품 시장이 위협 받음은 물론 고부가가치 식품 시장도 잠식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한 국산 식품이 시장에 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수입 식품에 대한 대응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 로컬푸드 운동에 국내 식품산업 부문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